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패션디자인과 정치 성향의 관계

이 승 옥

우석대학교 패션뷰티학과 부교수

The Relation Between Fashion Design of Vivienne Westwood and Her Political Attitude

Seung-Ok Lee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and Beauty, Woosuk University

(2005. 8. 5. 접수; 8. 19. 채택)

Abstract

Vivienne Westwood could be placed in a unique positio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design. She has never belonged in a core group of mainstream fashion designer but not been always in an outsider position. She got from mainstream fashion designer circles enormous appreciation, even established fashion industry was influenced by her fashion design. She began her fashion design with rebellious T-shirts like 'destroy' T-shirt, chicken-bone T-shirt, and nipple-zipper T-shirt, all of which revealed her disgust against establishment. All these T-shirts testify her total negation tendency in her youth. However, she did not continue to keep such a kind of total negation attitude against establishment. In 1980s she changed her political attitude towards establishment, and this change also found a reflection in her fashion design. In her pirate-collection the dark image of her fashion in the 1970s changed into a totally different bright image with full of gold colour. Although this collection had radiated brightness, it contained still outsider character from mainstream fashion design. The following fashion design in 1980s and 1990s evolved further on the line of Pirate-collection, but they continued to contain certain outsider characteristics. Vivienne Westwood kept some kind of anti-establishment attitude, and this attitude more or little came to the surface of her design. She was always political and critical to the establishment. In 2005, in her 64, she designed a liberty T-shirt, which showed her political attitude and her engagement in social issues. Also it showed the change from the early total negation to the constructive critical affirmation. In this paper the relation between the fashion design of Vivienne Westwood and her political attitude and the influence of her political attitude to her fashion design is analyzed.

Key Words: political attitude(정치적 성향), punk fashion(펑크 패션), anti-establishment(반 기성권력),
destroy T-shirt(디스트로이 티셔츠), liberty T-shirt(리버티 티셔츠)

I. 서론

한 시대의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이너의 미적경향을,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통하여 디자이너의 삶의 철학을 알 수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1941-)는 펑크룩(Punk Look)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웨스트우드의 패션 스타일은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웨스트우드는 펑크 룩이란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펑크룩이 그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후의 패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웨스트우드가 펑크 룩의 창시자로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¹⁾. 웨스트우드와 펑크 룩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웨스트우드가 그 후에 보여준 변화된 패션들도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가 있다²⁾. 그런데 이들 연구는 웨스트우드 패션의 특성을 주로 분석한 것으로 그녀의 내적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웨스트우드의 패션은 후기에 들어올수록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녀가 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우드의 패션이 보여주는 시기별 특성이나 그녀의 패션 전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패션이 사회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패션 디자이너의 정치적인 성향이 그의 패션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주변성을 내세운 펑크 패션의 디자이너로 출발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로서 위치하게 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정치적인 성향을 패션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서 다른 디자이너들도 표면에 나타난 시각적 또는 조형적 분석만의 연구를 벗어나 디자이너의 본질적 삶의 방향 즉 정치적, 사회 문화적 철학과 디자인 표현방식을 비교하는 분석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활동시기인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를 연구기간으로 하며, 웨스트우드가 각종 매체와 행한 인터뷰,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의 전시 설명자료, 웨스트우드의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웨스트우드 패션의 시기에 따른 변화와 그녀의 정치적인 성향과 패션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반역의 패션

웨스트우드의 패션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다. 당시는 서구 선진국에서 학생운동이 한창 불붙던 때였다. 68세대로 불리는 학생운동의 주역들은 당시 풍요를 구가하던 서구 선진국들 자체의 내부 모순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동서냉전을 구실로 보수적인 사회체제가 유지되고, 문화적인 분위기도 특별히 사회개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3세계의 착취라는 바탕 위에서 풍요를 유지하던 당시 서구사회의 모순적 형태를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중심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체제의 전복이었다. 나라마다 저항의 형태와 강도는 달랐지만 목표는 대체로 비슷했다. 그러나 저항의 결과는 나라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치적인 색채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프랑스에서는 드골정권이 무너졌고 독일에서는 사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운동세력도 있었는데, 이들은 폭력 사용으로 나아가서 테러단을 결성하기까지 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운동 초기의 정치적 색채가 변색되었고, 저항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저항문화 쪽으로 흘러갔다. 대표적인 예가 히피운동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청년문화였다.

웨스트우드도 1960년대 말의 서구 선진국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 이미 확립된 질서 가치 체제에 대한 부정이 20대의 정치적 감수성이 강한 웨스트우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학생운동이 히피문화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강한 저항운동은 사라지고 중산층 자녀의 반항적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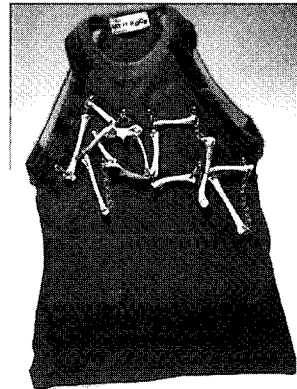
가 학생운동을 이어받았다. 웨스트우드와 그녀의 동반자 맥라렌(Malcom McLaren)은 이러한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와 맥라렌은 철저하게 반항적이었고, 당시 서구 젊은이의 기존질서에 대한 부정을 거의 온몸으로 내보일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웨스트우드의 동반자 맥라렌은 철저한 반 권위주의자로, 웨스트우드와 함께 패션을 통해서 반권위주의를 실천하려 했던 것이다⁴⁾. 그들이 처음에 패션을 시작했던 런던의 킹즈 거리 430 부근에는 히피풍의 옷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들 가게의 패션이 기울어져가는 중산층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당연히 거부했다. “이들은 반역에 흥미가 있었던 것이다”⁵⁾.

“나의 작업은 항상 기존의 확립된 것에 대항하는 것이고,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는 것”⁶⁾이라는 웨스트우드의 성향은 1970년대의 펑크 룩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녀의 초기 펑크 디자인으로 유명한 것은 디스트로이 티셔츠<그림1>, 닭 뼈 티셔츠<그림2>, 섹스 티셔츠 등의 티셔츠이다. 이들 티셔츠는 기존의 패션 자체를 뒤집은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정치적, 반사회적인 것이다. 디스트로이 티셔츠에는 Destroy라는 글자가 위에 써어 있고, 그 아래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림이 거꾸로, 그리고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 인쇄되어 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십자가의 예수로 상징되는 기독교는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서양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규정하는 가치체계이다. 기독교는 가장 공고한 기성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우드는 이러한 기성 가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패션을 이용했는데, 그것도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입고 다녔던 티셔츠라는 옷을 이용함으로써 강한 전파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웨스트우드의 티셔츠는 가장 단순한 일상의 간편복의 정치화라고 말할 수 있다.

웨스트우드의 디스트로이 티셔츠에 찍혀있는 나치 문양 또한 기성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었다. 티셔츠의 나치 문양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전쟁 중에 나치가 저지른 만행이 전 세계에 폭로된 후 나치를 상징하



〈그림1〉 디스트로이 티셔츠
Clair Wilcox, Vivienne Westwood, V&A
Publications, 2004, p.5



〈그림2〉 닭뼈로 Rock 형태를 만든 티셔츠
www.viviennewestwood.com

는 문양은 타기(唾棄)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소수 이긴 하지만 나치 찬양자들이 여전히 나치의 만행을 부정하는 일을 벌여왔기 때문에 나치 문양을 보여주고 다닌다는 것은 나치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치의 전체주의적인 체제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는 여전히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파시즘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베트남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전개되고 있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적인 체제가 반공산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웨스트우드 티셔츠의 나치 문양은 파시즘을 파괴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파시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나치의 파시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파시즘에 은근히 동조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상황을 파괴하자는 것이었다. 터부시된 나치즘에 대해 동조한다면 동조한다고 몇몇하게 말하자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었으니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가기도 했다. 웨스트우드와 맥라렌이 나치 문양을 기존체제에 대한 도전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1970년대 말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슬로건을 그들의 패션에 스스럼없이 사용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이 1977년 부티크의 이름을 '세디셔너리즈'(Seditionaries, 치안교란자)로 바꾸고 문을 열었을 때 인기 있던 셔츠에는 '우리는 폐허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는 문구가 찍혀있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파시스트 운동의 슬로건이었다⁸⁾. 거부, 반역, 부정을 위해 그들은 나치 문양이라는 터부까지도 이용했던 것이다⁸⁾.

핑크라는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이란 의미를 담고 있듯이 디스트로이 등의 핑크 록 티셔츠는 어떤 대안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웨스트우드와 맥라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반역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닭 뼈로 sex나 rock이라는 글자를 조합해낸 티셔츠, 지퍼로 젖꼭지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든 티셔츠<그림3>도 마찬가지로 반역적인 것이었다. 섹스는 웨스트우드와 맥라렌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기성권위에 대한 대항 무기였다. 1970년대 초의 당시에도 섹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터부로 여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미 풍요와 자유가 극에 달했던 당시 사회에서 성해방은 거의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터부시되었던 것이다. 맥라렌과 웨스트우드는 이러한 위선적인 사회 분위기에 반역하는 무기로 공개적인 섹스 이야기를 사용한 것이다. 그들은 상점 이름도 Sex라고 붙이고, 맥라렌의 밴드 이름을 Sex Pistols라고 이름붙이는 등 섹스를 공개적으로 상표로서 내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티셔츠에 훨씬 자극적인 '케임브리지 강



〈그림3〉 지퍼달린 티셔츠
Clair Wilcox, Vivienne Westwood, V&A Publications, 2004, p.39



〈그림4〉 고무바지
Clair Wilcox, Vivienne Westwood, V&A Publications, 2004, p.40

간 범' (Cambridge Rapist), '소아성애'(Paedophilia) 같은 말까지 찍어서 판매했고, 이러한 행동 등으로 인해 결국 1975년 외설죄로 기소당하기까지 했다.

웨스트우드의 기성권위에 대한 반역은 1970년대 중반에 티셔츠보다 더욱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한 패션으로 나아간다. 그녀는 사무실용 고무옷<그림4>을 만든 것이다. 당시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몸에 딱 달라붙는 다른 소재와는 아주 이질적인 고무 옷은 기성권위에는 꽤 위협적으로 보였고, 당시의 나쁜듯한 위기를 못 견뎠던 젊은이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것으로 작용했다⁹⁾.

Ⅲ. 변화의 시작과 해적 패션

웨스트우드의 핑크 패션은 1970년대 말부터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핑크룩은 서서히 주류(主流) 패션계로 흡수되어갔고, 웨스트우드는 이러한 과정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웨스트우드는 지금도 여전히 옷이 사람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¹⁰⁾, 반역으로서의 패션 작업에 지친 나머지 자신이 “과연 옳았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다. 그리고 ‘반 기성권력’(Anti-Establishment)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성권력을 살찌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¹¹⁾. 이러한 생각은 그녀에게 커다란 전기를 가져오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기성권력에 대한 부정과 반역만을 외치는 패션이 아니라 기성권력 내부에서 저항하는 패션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기성권력 안에서의 저항이란 어느 정도는 기성권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스트우드의 변화는 일종의 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역과 부정은 모든 기성의 것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선명하지만 어떤 대안적인 것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디스트로이티셔츠에서 보이듯이 그전의 핑크 디자인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부정과 거부만이 있었지, 티셔츠를 입을 수 있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건설적인 저항은 조금도 없었다. 이러한 핑크 패션도 결국은 주류패션에 서서히 흡수되어갔으니 웨스트우드의 반역과 부정이 그녀의 의도대로 되어간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웨스트우드는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류 패션 안에 들어가서 저항을 하며 대안적인 것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¹²⁾.

대안의 모색은 내부에서의 저항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내부 저항이란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류 밖에서 저항과 거부하는 주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류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주류 안에서의 저항은 주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저항이 참신한 대안적인 것을 통한 저항이 아닐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주류와 함께 춤을 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주류 속에서의 저항이 밖에서의 저항보다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다.

주류패션 안에서의 저항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핑크가 이미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음을 깨달았지만 한동안 돌파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돌파구는 웨스트우드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의 거부가 아니라 인정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웨스트우드는 역사로 눈을 돌렸고, 전통 의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공부에서 그녀는 다양한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착목한 것이 500여년 전부터 내려온 패틴이었다. 이것이 결정화 된 것이 로 해적 컬렉션이었다<그림5>. 해적 컬렉션은 기존의 것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핑크 디자인과는 판이했다. 핑크 디자인은 거의 검은색의 모노톤(monotone)이었다. 그러나 해적 디자인은 매우 화려하고 다양했다. 거역의 소리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단색의 티셔츠나 고무바지 대신 화려한 금빛 중심의 다양한 색상이다 천들이 출렁거리는 호방한 디자인이 해적 컬렉션의 특징이었다. 모델은 이에도 금빛을 칠하고 당시 젊은이의 최첨단 장식인 소니의 워크맨을 둘러맨 모습이었다.

웨스트우드의 해적 컬렉션은 그녀의 완전한 변신을 보여주었다. 검은색의 모노톤으로부터 화려



〈그림5〉 해적 컬렉션
www.viviennewestwood.com

함으로의 변신을 강렬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고 해적 컬렉션이 그녀가 주류에 항복한 것으로 비치게 하지도 않았다. 주류 속으로 들어갔으면서도 아주 색다른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류를 선도하는 대안적인 것을 선사한 것이다. 주류 패션계의 일부는 해적 컬렉션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션쇼에는 당시의 패션 클럽의 소유자인 마이클 코스티프(Michael Kostiff)와 겔린데 코스티프(Gerlinde Kostiff)도 왔는데, 그들은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아주 마술적이었다. 거기에는 금빛 광휘가 있었

고, 아주 무모한 허세가 있었고, 영웅적인 느낌이 있었다.”고 극찬했다¹³⁾.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충격적이었다<그림6><그림7>.

해적 컬렉션은 즉각 주류 패션계의 관심을 끌었고, 웨스트우드도 주류 패션계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 전에 그녀는 유별난 반항적인 부티크 주인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다¹⁴⁾. 1980년대, 40대에 접어든 웨스트우드는 이제부터 주류 패션계 안에서 정치성이 강한 참신한 패션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여정에 들어간 것이다.



〈그림6〉 해적컬렉션
www.viviennewestwood.com



〈그림7〉 해적컬렉션
www.viviennewestwood.com

IV. 후기 정치성, 포스터모던 페미니즘 패션

해적 컬렉션을 통해서 주류 패션계의 내부로 들어간 웨스트우드는 그 후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실험적 패션을 선보인다. 해적 컬렉션이 펑크룩과의 단절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적인 역할을 했다면, 에스닉(ethnic) 패션을 보여주는 1980년대 초의 야만인 컬렉션(Savage Collection)과 버팔로 컬렉션(Buffalo Collection)은 제3세계에서 모티프를 끌어옴으로써 패션을 통해 제3세계와의 연대를 나타내려 했다. 그녀의 동반자 맥라렌은 이러한 패션이 “이제 영국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은 영국에 제3세계와 함께 하려는 분명한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 즉 아프리카 옷을 입고, 그 위에 도미니카의 모자를 쓰고, 뉴기니아 부족의 화장 같은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웨스트우드 패션의 정치적인 의미를 설명했다¹⁵⁾.

1980년대와 1990년대 웨스트우드의 패션은 지적인 연구의 뒷받침을 받은 끊임없는 실험정신으로 차 있었고, 역사적인 모티프의 변형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이러한 패션은 그녀의 지적인 탐구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지적인 탐구 또한 그녀의 정치성과 결합된 것이었다. 물론 당시 그녀의 패션은 디스트로이 티셔츠와 같이 정치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 아방가르드(avant garde)적인 것이었고, 실험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종종 그녀의 사회적 성향이 드러나곤 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섹스, 남성과 여성의 관

계, 소비사회에 대한 그녀의 비판 등이 패션에서도 나타났다. 그녀 자신도 정치성이 매우 강했지만, 그녀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정치성이 강한 페미니스트 들 의 성 과 의상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페미니스트 들은 유행 의상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여성의 성을 드러내는 의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그림8>, 가능한 한 이러한 신체과시를 억제하는 의상을 선호하고 퍼뜨리려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여성 의상의 남성화를 통해 의상에서도 남녀의 동등함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다¹⁶⁾¹⁷⁾¹⁸⁾.



〈그림8〉 여성성의 강조
www.viviennewestwood.com

페미니스트 들이 여성의 신체를 가능한 한 감추고 남성과 동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의상을 선호한 반면 웨스트우드는 이러한 시도를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나는 이등 남성 같이 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한 적이 없다. 여성성은 강한 것인데<그림9>, 사람들이 이 재미없는 무성(無性)의 신체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¹⁹⁾”고 말할 정도로 무성의 강조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다. 그녀는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이 더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페미니스트 들은 이러한 그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매우 전투적이고 정치성이 뛰어난 웨스트우드가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그림9〉 전통적 여성성을 부각시킨 패션
www.viviennewestwoo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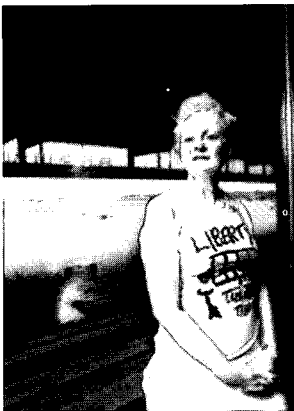
패션을 한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우드는 “페미니스트들은 역사에서 여성의 대단한 역할을 잘 알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남성처럼 여겨지도록 하기를 원하지만, “여성성은 남성이 아니며 둘은 서로 사귀며 비비적거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²⁰⁾. 그녀는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강조, 은유하기 위해 양극성과 역사적 유물을 이용하고 있다²¹⁾.” 이렇게 여성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류 패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웨스트우드의 아웃사이드 적 패션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특성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²⁾.

웨스트우드의 정치성은 영국 복식의 패러디에서도, 특히 1992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게서 작위를 받을 때 그녀가 입었던 의상에서도 나타난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작위를 받음으로써 여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옷을 입지 않고 비치는 치마를 입음으로써<그림10> 권위에 대한 부정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나중에 자신은 작위수여식에서 치마가 빛을 받으면 그렇게 비치게 보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지만, 속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녀의 반권위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패션이 아닌 정치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패션을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정치성을 보여주었다.



〈그림10〉 작위 수여식에서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Harriet Worsley, Decade of Fashion, 2000,
Koenemann, p.725



〈그림11〉 리버티 티셔츠
http://www.cicero.de/97.php?ress_id=7&item=744

2005년 7월 베를린예술대학 초빙교수에서 은퇴한

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좀 더 자유를 지키는 활동에 시간을 쏟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위해 자유(Liberty)라는 말이 찍힌 티셔츠를 디자인하기까지 했다²³⁾〈그림11〉.

V. 결 론

디스트로이(파괴하라)로 시작한 웨스트우드의 패션은 리버티(자유)〈그림11〉로 일단락되었다. 파괴와 자유에 담긴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파괴는 부정과 반역의 어두운 이미지만을 전달한다. 자유는 긍정과 희망의 밝은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토록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다. 모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적이란 것이다. 파괴도 기성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고 자유도 기성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서로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웨스트우드의 변화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녀는 처음에도 정치성이 강한 디자인을 했고, 이 정치성은 그녀의 패션에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패션이라는 수단 속에서 정치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그녀의 기성 권력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랐던 것일 뿐이다.

패션은 그 사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것과는 크게 상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의상에 대한 정의나 해석은 주로 인간의 생물성과 연관지어서 이루어졌다. 몸을 감쌌으로써 몸을 감추거나 부각시키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 감춤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더

〈표1〉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와 디자인 특성

	정치 성향	디자인 특성
반역의 패션	기성 권력에 대한 철저한 반역 터부에 대한 도전 섹스의 무기화	디스트로이 티셔츠 닭 뼈 티셔츠 고무바지
변화의 시작과 해적 패션	역사적 회귀 반역을 위한 반역에의 회의 대안적인 것의 관심	해적 컬렉션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뉴 로맨티시즘 후기
후기 정치성,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	제3세계와의 연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세계화와 소비주의 문화 비판지적인 에로티시즘 역사적 모티프의 혼합	지적인 에로티시즘 역사적 모티프의 혼합

은밀한 것으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성적 매력을 높인다는 식의 해석이 많았다. 사회적인 면과의 상관관계는 신분적 질서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되었다. 화려한 의상과 높은 신분, 유니폼과 평등 등의 관련성이 그러한 분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의상의 정치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의상이 사회적인 신분과 연관된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해서 의상이 정치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은 의복을 유니폼 화 함으로써 의상을 통한 신분차별을 없앤 것이지 의상을 혁명에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의상의 정치화란 의상을 통해 전복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상 디자이너들은 의상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받는 디자이너들이 모두 주류 패션계 속에 있고 기성권력이라 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전복의 의도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소위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의상도 해체주의의 한쪽에 숨어있는 전복적인 면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의 것에 대한 해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한 것뿐이다. 해체주의 디자인은 해체를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것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패션업계에 충실하게 봉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웨스트우드의 경우는 그녀의 디자인 속에서 해체주의적인 성향도 발견되고, 그녀의 디자인이 패션의 유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항상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핑크 스타일은 기성권력에 대한 반역, 부정이라는 강한 정치색을 지니고 있었고, 해적 컬렉션에서 시작된 역사적 모티프의 변형 스타일도 정치색을 띠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녀 자신이 비록 변화는 있었지만 항상 의상을 정치적인 것으로 본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치적인 것이란 디스트로이식의 반역에서부터 의상의 세계화를 통한 의상의 미국화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것이다. 그녀의 정치적 성향은 자신의 표현대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가 내거는 슬로건이 디스트로이에서 리버티로 바뀌었을 뿐 정치성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웨스트우드의 패션에서 정치성에 대한 분석은 그녀의 패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정치성은 단순한 부정과 반역으로부터 대안을 통한 변혁 또는 정치적으로 사소한 것의 보호를 통한 변혁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그녀의 2005년 7월 베를린예술대학 객원교수 고별사에서 “소비하기보다 생각하라”는 말을 통해 현대 사회의 소비조장 풍조에 대해 비판적이며 세계화에 대한 그녀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여기서 그녀는 앞으로 환경문제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쏟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의 건설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디자인에서도 드러난다. 나치 문양이 중앙에 어둡게 자리 잡은 디스트로이 티셔츠에서 시작하여 주류패션 속에서의 역사성을 변환한 패션을 거쳐 철창과 열쇠가 수줍은 듯이 자리 잡은 리버티 티셔츠로의 변화는 바로 그녀의 정치성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패션은 그녀의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정치성과 패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패션을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패션을 정치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장애란 (1998). 핑크룩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 pp. 197-215.
- 2) 염혜정 (1997).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38, pp.71-89.
- 3) 나현신, 전혜정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비비안 웨이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pp.463-474.
- 4) Wilcox, C. (2004). *Vivienne Westwood*. V&A Publications, p.11.
- 5) Ibid.
- 6) Ibid., p.12.

- 7) Ibid., p.14.
- 8) Breward, C. (2003). *Fash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196-197.
- 9) Ibid., p.12.
- 10) http://www.vam.ac.uk/vastatic/microsites/1231_vivienne_westwood/answers.html
- 11) Wilcox, C. (2004). Op. cit., p.15.
- 12) 웨스트우드는 Cicero: *Magazin fuer politische Kultur* 2005년 8월호에 수록된 인터뷰 (http://www.cicero.de/97.php?ress_id=7&item=744)에서 64세인 현재 그녀의 정치적 견해가 핑크룩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13) Ibid., p.16.
- 14) Ibid., p.17.
- 15) Ibid.
- 16) 1960년대와 70년에 페미니스트들의 의상에 대한 시각을 소개한 것으로는: 다이내너 크레인, 서미석 옮김 (2005).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울: 한길사, pp.211-212를 참조할 것.
- 17)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 pp.203-224.
- 19) Franklin (1983. 3). I-D, p.74.
- 20) Interview with Vivienne Westwood 21/02/00. 자료검색일. 2005. 6. 30. 자료출처 <http://www.chelseanet>
- 21) 엄혜정 (1997). Op. cit., p.82.
- 22) 최현숙 (2000). Op. cit., pp.119-135.
- 23) http://www.cicero.de/97.php?ress_id=7&item=744
- 24) 의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15를 참고할 것; 신분과 의상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이내너 크레인, 서미석 옮김 (2005). Op. cit., pp.57-114를 참고할 것.
- 25) 웨스트우드 는 의상의 미국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는 세계화에 대한 그녀의 비판과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Cicero: Magazin fuer politische Kultur* 2005년 8월호에 수록된 인터뷰 참조. 자료검색일. 2005. 7. 10. 자료출처 http://www.cicero.de/97.php?ress_id=7&item=744
- 26) 참고문헌 10번 인터뷰 참조.